

이상득 국회부의장
대구시의원 간담회

李 얘기는 없었다?

“동생 위해 만났는데 동생 얘기는 안 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2월28일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대구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부의장이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 만큼 시의원들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까봐 간담회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경우, 이 같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더욱 난감하다. 결국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부의장이 기독교 단체에서 마련한 3·1절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김에 시의원과 대구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화는 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대구·경북 경제통합 등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이 부의장은 ‘오늘 정치 얘기(대통령선거)는 하지 말자’고 했으며, 동생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다른 경선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형제의 외모(키, 얼굴)와 목소리,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소재로 동생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으며, 동생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동안 자

신은 한번도 서울시청에 간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정도에서 그쳤다는 것.

또 다른 시의원은 “대통령선거와 관련, 오해를 받을만한 말은 안 했지만,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대구시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하다. 같은 당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의 다른 일정 때문에 1시간이 채 안돼 끝났다. 이 부의장은 5선의 정치 고수(?)로서 시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까.

최근기자 kons@yeongnam.com